

# 도시화 정도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통합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분석: 특별·광역시 지역과 도지역 거주자의 비교

## Discriminant Factors Influencing the Community Integration of Immigrant Women on Marriage: Comparison of Regional Traits

김경범\*, 박철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Kyung-Bum Kim(saint2525@korea.kr)\*, Cheol-Min Park(cmpark@jeju.ac.kr)\*\*

### 요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특별·광역시지역과 도지역 거주자 구분하여, 거주지의 특성이 지역사회통합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변인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특별·광역시지역 거주 결혼이주여성 163명, 도지역 거주 결혼이주여성 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항로짓모델(binary logit model)을 주로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의 적합성은 특별·광역시지역 모형과 도지역 모형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별·광역시지역 모형과 도지역 모형의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개인적 특성 및 가족적 특성은 특별·광역시 지역보다 도지역에서 지역사회통합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적 특성은 도지역보다 특별·광역시 지역에서 지역사회통합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정책적 개입에 있어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 중심어 : | 결혼이주여성 | 지역사회통합 | 거주지 특성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ole of individualistic, family,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immigrant women on marriage on community integration. It is focused on exploring how the immigrant women on marriages' residential district differentiate community integration. The study adopts a questionnaire method in research of immigrant women on marriage in all parts of Korea. Data are collected from 163(Metropolitan Government & City), 182(Provincial Government) immigrant women on marriage for empirical analysis respectively. Technique used in analyzing data is Binary Logit Model primarily. In conclusion, on the results of test, it turned out to be strong significant influence on provincial regions than the metropolitan city regions statistically excepting family, and social characteristics.

■ keyword : | Immigrant Women on Marriage | Community Integration | Residential Characteristics |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2247)

접수일자 : 2018년 03월 20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4월 11일

수정일자 : 2018년 04월 10일

교신저자 : 박철민, e-mail : cmpark@jeju.ac.kr

## I. 서론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과의 결혼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이 되었다. 과거 1960년대 우리 사회에서 이민이란 말은 한국 사람들이 서독의 광부나 간호사로 취업하기 위해 이주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민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이주민은 2007년 4월 80만 명을 돌파하고, 2008년 8월 1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2017년 12월 현재, 국내 거주 결혼 이민자는 16만 62,431명이며, 전체 외국인 주민(71만여명)의 22.3%로 우리사회가 다문화 공존 사회로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국제결혼 현상은 향후에도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문제점들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결혼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이다[1].

한편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할 유일한 취약계층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엄연히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이며, 본인들과 가족, 자녀들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지탱하는 구성원들이다. 이렇듯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통합은 인도적 차원의 배려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검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 특성을 특별·광역시 지역과 도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도지역은 특별·광역시 지역에 비해 지역이 넓고 상대적으로 농촌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특별·광역시 지역은 인구의 팽창과 도시적 생활방식이 체화되어 있다. 여기서 도시적 생활방식의 특징은 통상 구성원들간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사회적 접촉의 대부분은 비인격적이고 표면적이며 일시적인 것이 되기 쉽고, 인간관계는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기 쉽다. 밀접한 감정적 유대가 없는 사회성원간에는 협력보다는 경쟁과 상호이용이 조장되고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도시화가 심화될수록 지역사회내의 동질성이 약화되고 주민간의 상호작용과 유대가 낮아지면서 지역사회가 쇠퇴한다[2].

이러한 주장을 고려한다면, 도시화의 수준 차이가 존

재하는 특별·광역시 지역과 도지역 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지역사회통합 정도는 차이가 존재할 개연성이 높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와 동시에 거주지역이 결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특성은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양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연구들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대응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의 수준을 반영하는 지역특성을 특별·광역시와 도지역으로 구분한 뒤, 지역사회통합 영향 변인을 비교한다.

## II. 이론적 논의

### 1. 지역사회통합

사회통합이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도록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상태이다[3].

사회통합은 객관적 사회통합과 주관적 사회통합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객관적 사회통합은 가정내 통합을 지역사회통합의 하위차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4]. 그러나 경험적 연구를 위해 사회통합을 지역사회통합의 개념으로 한정하고, 개인의 '지역사회 연관 활동의 수행 정도'로 측정하여, 사회통합을 지역사회통합으로 구체화하고, 주로 개인의 역할수행을 지역사회와의 연관 기능으로 조작화하였다. 이러한 지역사회통합의 개념에는 소수자들도 일반시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정기적 교류하는 것, 일반시민들과 함께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문제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 일반시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소비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을 포함하였다[5].

특히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지역사회통합 개념이 더욱 적실성을 가지는 것은 이질적인 언어·사회문화·생활습관, 이방인이라는 시선, 거주지역의 상대적 한정성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통합 개념의 적용성이 더욱 높다.

## 2. 지역사회통합의 영향변인

### 2.1 개인적 특성

결혼이주여성들이 처한 개인적 특성은 정신건강 또는 사회경제적 적응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6]. 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고 하였다[7].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관련해서 낮은 소득으로 인해 주관적 행복감이 낮을 경우, 지역사회활동 의욕과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실질적인 소득액수 보다 상대적인 소득수준의 중요성이라고 하였는데[8].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에서의 소득수준 인식뿐 만 아니라 모국에서 경험했던 소득수준 평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한국에서 저소득층에 속하지만 모국에서 더욱 빈곤한 생활을 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주관적 행복감을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거주기간으로 한 사회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요한다. 특히 결혼 이민자의 경우 이민 초기에는 낮은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을 개연성이 높다. 거주기간이 오래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고 하였다[9]. 즉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웃이 생기고 이에 따른 만남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사회활동이 활성화되고, 사회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활발해질 개연성이 높다.

한국어구사능력 관련해서 한국사회 부적응, 자녀교육의 애로의 중요 원인이 한국어 구사능력의 미숙에 연유하며[6],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 및 통합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변수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혼생활의 안정성이 결혼연령과 정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볼 때, 연령차가 사회적 및 사회통합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연령차가 크다는 것은 남편이 재혼일 가능성이 높고, 재혼의 안정성이 초혼에 비해 낮다고 하였다[10].

마지막으로 취학연수로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어 습득능력과 같이 적응 및 조직 통합수준이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내국인의 학력이 가지는 의미와는 달리 이민자는 ‘숙련의 이전장벽’

존재하기 때문에 모국에서의 학력수준이 노동시장 진입 및 지위에 반드시 정비례 한다고 보기 어렵다[4].

### 2.2 가족적 특성 : 가족의 지지 정도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로 개인의 행동 및 가치, 의사결정,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환경의 하나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가정폭력, 시댁식구와의 갈등,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의 지지정도는 적응 및 사회통합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결혼이민자는 우울, 불안, 공포, 모멸감과 같은 적응상의 어려움과 함께 일상생활에 지장을 호소하며[11], 가정경제가 어려울 경우 우울함 및 불안감이 증가한다고 하였다[12].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경우 가족의 응집정도, 표현정도, 갈등정도는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3]. 이처럼 개인의 사회적응에 있어 가족기능이나 가족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가족의 지지적 환경은 개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이며,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 2.3 사회적 특성 : 사회적 지원 정도,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이용 정도

개인은 한 개체인 동시에 가족의 구성원이며, 직장, 학교, 종교단체, 지역 등의 일원으로 사회 환경의 구성요인이 된다. 사회체계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이 포함되며 개인의 부적응은 그가 속한 사회에 의해 야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부적응 상태의 개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체계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원은 결혼이민자의 부적응을 완화시켜주는 요인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조절, 문제해결 기능을 수행한다[14]. 새로운 사회에서 사회적 지원체계가 충분치 못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사회적 지지는 중요 역할을 수행하는데, 정보제공, 정서 및 물질 등 사회적 지지의 제공은 정신적 부적응의 극복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5]. 따라서 정부의 각종 적응

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도 이들의 적응 및 사회통합에 중요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조현미(2011)는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지역별료(경북 고령군의 경우) 50여종의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라고 하였다[16]. 결국 이러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이들의 능력을 끌어내어 노동시장 진입 및 사회통합을 원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및 사회통합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사회적 특성이 지역사회통합(인지 유/무)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광역시 및 도지역 거주자간 차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표 1]과 같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제시한다.

표 1.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개인적 특성	가구소득, 거주기간, 한국어 구사능력, 남편과의 연령차, 취학연수	지역사회통합(인지 유/무)
가족적 특성	가족의 지지 정도	-사회적 교류 -생산활동
사회적 특성	사회적 지원 정도, (정부)지원프로그램 이용 정도	-정치적 활동 -소비활동

### III. 연구 설계 및 변수 정의

#### 1. 연구방법론

특별·광역시 지역과 도지역 거주 결혼이주여성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지역사회통합 상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항로짓분석을 활용한다. 종속변수는 지역사회통합 상태를 통합인지 집단과 비인지 집단을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이항로짓분석은 임의로 특정 기준범주(Baseline-category)를 설정하고, 이 범주와 반응범주의 쌍을 지어 로짓모형을 정의하며, 종속변수 Y가 반응범주 1, 2, 3, ..., J이고, 공변량  $x_1, x_2, \dots, x_k$ 인 이항로짓모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17]. 분석을 위해서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log_e \frac{P(y = j : j = x_1, \dots, x_k)}{P(y = J : J = x_1, \dots, x_k)} = \pi_j = \sum_{k=1}^K \beta_{jk} \cdot x_k$$

#### 2. 자료수집

경험적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거주현황은, 특별·광역시 지역은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44.6%, 도지역은 55.4%를 차지하고 있다[18].

표 2. 결혼이주여성의 지역별 거주현황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인원	4,092명 (24.6%)	4,142명 (24.9%)	1,015명 (6.1%)	932명 (5.6%)	815명 (4.9%)	715명 (4.3%)	765명 (4.6%)	549명 (3.3%)
지역	대구	광주	강원	대전	전남	전북	울산	제주
인원	466명 (2.8%)	316명 (1.9%)	532명 (3.2%)	349명 (2.1%)	815명 (4.9%)	732명 (4.4%)	250명 (1.5%)	150명 (0.9%)
합계	166,353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2017.12.30 기준 작성)

특별·광역시 지역과 도 지역별을 대상으로 수집한 50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특별·

표 3. 표본 특성

항목	특별·광역시	도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28(15.6)
	100-200만원	91(50.2)
	200-300만원	55(30.4)
	300만원 이상	7(3.8)
거주 기간	1년 미만	19(10.4)
	1-3년 미만	27(14.9)
	3-5년 미만	43(23.5)
	5-8년 미만	72(39.8)
	8년 이상	21(11.4)
한국어 구사 능력	매우 능숙	7(3.9)
	능숙	12(6.6)
	보통	27(15.1)
	서툰	81(44.6)
남편과 연령차	매우서툰	54(29.8)
	6세 미만	34(18.7)
	6-10세	63(34.7)
취학 연수	10세 이상	87(47.6)
	중졸 이하	34(18.9)
	고졸	70(38.5)
배우자 정보의 일치도	대졸(전문대포함)	78(42.6)
	매우 일치	7(3.7)
	대체로 일치	16(8.9)
	보통	79(43.5)
합 계	대체로 불일치	63(34.4)
	매우 불일치	17(9.5)
	합 계	182(100%)

광역시 지역 163부, 도지역 182부, 총 345부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조사 기간은 2016년 5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며, 표본 특성은 [표 3]과 같다.

### 3. 측정도구 및 변수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근거로 측정도구를 구성하였으며, [표 4]와 같이 변수에 대해 정의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지역사회통합 인지 여부를 인지와 비인지의 0과 1이라는 이원분류 종속변인(Dichotomous Classification)으로 구분하고, 독립변수는 가구소득, 거주기간, 한국어구사능력, 남편과의 연령차, 취학연수, 가족의 지지정도, 사회적 지원정도, 정부지원 프로그램 이용정도로 구성하였다.

표 4. 변수의 정의

구분	변수	측정
종속 변수	지역사회 통합인지 여부	0= 지역사회통합 인지 없음, 1= 지역사회통합 인지 있음
독립 변수	가구소득	1=100만원 미만, 2=200만원 미만, 3=300만원 미만, 4=300만원 이상
	거주기간	1=1년 미만, 2=1-3년 미만, 3=3-5년 미만, 4=5-8년 미만, 5=8년 이상
	한국어구사능력	1=매우 서툰 ~ 5=매우 능숙
	남편과의 연령차	남편연령-이주여성연령, 남편연령 클수록 정(+)의 값 증가, 여성연령 클수록 부(-)의 값 증가
	취학연수	1=중졸 이하, 2=고졸, 3=대재 이상
	가족의 지지정도	1=전혀 그렇지 않음 ~ 5=매우 그러함
	사회적 지원정도	1=전혀 그렇지 않음 ~ 5=매우 그러함
	정부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정도	0=이용 경험 없음, 1=이용 경험 있음

## IV. 분석결과 및 논의

### 1. 타당도 분석

측정변수의 타당성(validity)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 예측타당성(predictive validity), 그리고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 등이 이용된다[19]. 본 연구에서 측정 항목들의 개념타당성

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개념 신뢰도(수용범위: 0.7 이상)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수용범위: 0.5 이상)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각 변수에 대한 측정지표들의 표준화 적재치가 0.5이상으로 내용 타당성은 충족되었으며, 변수의 분산추출 지수 역시 0.5이상으로 예측타당성도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문항에서 표준화 적재치 기준에 미달하여 분석항목에서 제외한 항목들은 사용하여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를 확보하였다.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항목		표준화 적재치	구성개념 신뢰도	문항수 (최초)	AVE
지역사회통합 1 (사회적 교류)	I-1	.716	.83	6	.625
	I-2	.729			
	I-3	.728			
	I-4	.814			
	I-5	.702			
	I-6	.715			
지역사회통합 2 (생신활동)	P-1	.747	.82	5 (6)	.622
	P-2	.727			
	P-3	.737			
	P-4	.541			
	P-5	.691			
	P-6	.736			
지역사회통합 3 (정치적 관여)	PI-1	.726	.80	5 (6)	.617
	PI-2	.748			
	PI-3	.728			
	PI-4	.437			
	PI-5	.742			
	PI-6	.692			
지역사회통합 4 (소비활동)	C-1	.736	.74	6	.602
	C-2	.692			
	C-3	.752			
	C-4	.691			
	C-5	.736			
	C-6	.683			
가족의 지지 정도	FS-1	.738	.80	5 (6)	.642
	FS-2	.727			
	FS-3	.695			
	FS-4	.485			
	FS-5	.705			
	FS-6	.726			
사회적 지원 정도	SS-1	.739	.81	5 (6)	.658
	SS-2	.701			
	SS-3	.696			
	SS-4	.718			
	SS-5	.503			
	SS-6	.742			

### 2. 로짓분석

특별 · 광역시지역과 도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사회통합의 이원화된 반응변수(범주 0, '지역사회통합인지 없음'을 기준 범주로 설정함)와 가구소득, 거주기간, 한국어 구사능력, 남편과의 연령차, 취학연수, 가족의 지지정도, 사회적 지원정도, (정부)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정도를 나타내는 예측변수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항로짓분석의 적합성(Good of fitness)은 [표 6]과 같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별·광역시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i) 가구소득은 지역사회통합 인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역사회통합 인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ii) 거주기간은 지역사회통합 인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주기간이 높을수록 지역사회통합 인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iii) 한국어구사능력 역시 지역사회통합 인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할수록 지역사회통합 인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남편과의 연령차는 지역사회통합 인지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과의 연령차가 클수록 지역사회통합 인지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v) 취학연수 통계적 유의성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가족의 지지정도는 지역사회통합 인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의 지지정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통합 인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vii) 사회적 지원정도는 지역사회통합 인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원정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통합 인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viii) 마지막으로 (정부)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정도로 기준변수(이용 경험 없음)를 중심으로 보면, 설명변수인 이용 경험자는 지역사회통합 인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지역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i) 가구소득은 지역사회통합 인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역사회통합 인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ii) 거주기간은 지역사회

통합 인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주기간이 높을수록 지역사회통합 인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iii) 한국어구사능력 역시 지역사회통합 인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할수록 지역사회통합 인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남편과의 연령차는 지역사회통합 인지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과의 연령차가 클수록 지역사회통합 인지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v) 취학연수 통계적 유의성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가족의 지지정도는 지역사회통합 인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의 지지정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통합 인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vii) 사회적 지원정도는 지역사회통합 인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원정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통합 인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viii) 마지막으로 (정부)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정도로 기준변수(이용 경험 없음)를 중심으로 보면, 설명변수인 이용 경험자는 지역사회통합 인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이항 로짓분석 결과

변수	특별·광역시 지역		도지역	
	B	Exp(B)	B	Exp(B)
상 수	2,542***		2,765***	
가구소득	.249*	1,272	.316**	1,306
거주기간	.273*	1,343	.421**	1,684
한국어 구사능력	.307**	1,371	.464**	1,764
남편과의 연령차	-.234*	1,245	-.311**	1,285
취학연수	.179	1,173	.203	1,194
가족의 지지정도	.503***	1,514	.715***	2,118
사회적 지원정도	.605***	1,723	.527***	1,981
(정부)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정도(이용경험 있음)	.511***	1,564	.505***	1,845
-2Log-Likelihood	3,934		4,354	
Chi-square	382***		412***	
Nagelkerke R-제곱	.413		.452	

주 1: 지역사회통합 인지 없음(종속변수), (정부)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경험 없음(독립변수)을 기준범주(reference category)로 설정함  
 주 2: \*\*\* P<0,01, \*\* P<0,05, \* p<0,1

### 3. 논의

첫째, 개인적 특성에 속하는 가구소득, 거주기간, 한

국어 구사능력, 남편과의 연령차 변수 모두 특별·광역시 지역보다 도지역에서 지역사회통합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 가구소득은 종속변수에 차별적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지역에서 가구소득이 지역사회통합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농촌지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 일자리 부족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ii) 거주기간 역시 종속변수에 차별적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지역사회통합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농촌지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문화시설 접근성, 부족한 교통시설, 지리적 취약성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iii) 한국어 구사능력 역시 종속변수에 차별적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지역에서 한국어 구사능력이 지역사회통합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농촌지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프로그램, 접근성 저하, 교통 불편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iv) 남편과의 연령차 역시 종속변수에 차별적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지역에서 남편과의 연령차가 지역사회통합에 더욱 큰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농촌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부장적 문화,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편과의 연령차가 10살 이상인 경우 농촌지역이 더욱 높았듯이 이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취학연수는 특별·광역시 지역, 도지역 모두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생산성 차이는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정도에 의존하며 이러한 기술력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하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인적자본이론은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낮은 소득수준, 열악한 직업상태로 남게 되는 것은 인적자본에 대한 낮은 투자로 인한 낮은 생산성의 결과로 이해한다. 이러한 인적자본에는 교육, 기술, 경력, 건강 등이 해당된다[20]. 이와 같이 볼 때, 결혼이주여성들은 모국에서 획득한 기술, 학력, 경력이 있다하더라도 한국사회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설사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기술, 학력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한국사람보다 경쟁력을 갖춰 취업과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가족적 특성으로 가족의 지지정도는 특별·광

역시 지역보다 도지역에서 지역사회통합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지지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를 위해 특히 결혼 초기에 배우자간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상대국의 문화, 역사, 가치에 대한 교육과 상호대화 증진, 언어교육 등을 통해 상당부분 극복할 수 부분으로 가족의 지지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 대상 서비스기관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특성에 속하는 사회적 지원정도, (정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 모두 도지역보다 특별·광역시 지역에서 지역사회통합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 사회적 지원정도는 종속변수에 차별적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광역시 지역에서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기회가 많고, 농촌 거주자에 비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론된다. ii) (정부)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종속변수에 차별적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광역시 지역에서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의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참여는 시공간적리 측면에서 접근성은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론된다. 즉 접근성의 한계는 이들의 활동영역 및 관계형성의 제한을 가져오며, 이는 다양한 생활 측면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을 특별·광역시지역과 도지역 거주자로 구분하여 지역사회통합에 미치는 차별적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사회적 특성으로 영향변인을 범주화하고, 결과변인으로서 지역사회통합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인지여부 유무로 조작화하였다.

분석모형은 이항로지토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별·광역시지역 모형과 도지역 모형의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첫째, 개인적 특성에 속하는

가구소득, 거주기간, 한국어 구사능력, 남편과의 연령차 변수 모두 특별·광역시 지역보다 도지역에서 지역사회통합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적 특성인 가족의 지지정도 변수 역시 특별·광역시 지역보다 도지역에서 지역사회통합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특성에 속하는 사회적 지원 정도, (정부) 프로그램 이용 정도 변수는 도지역보다 특별·광역시 지역에서 지역사회통합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사회통합에 미치는 유의적 변인들이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창기 결혼이주여성은 농촌지역에 주로 거주하였지만, 1990년 후반 본격적인 다문화시대에 진입하면서 도시거주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이들의 거주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통합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는 점에서 연구 가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도시지역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의료기관 등 제반 시설의 편리성 등 지역이 가진 특성으로 인해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 강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사회협력네트워크를 이용한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와 취약지역을 위한 방문교육사업과 같은 정부의 노력이 도지역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됨을 시사한다.

한편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구분한 지역 특성이 실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관찰하기에 너무 큰 지역 단위일 가능성이 있다. 동일 도지역내에서도 도시적 특성을 가진 지역과 농촌적 특성을 가진 지역이 공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은 지역 특성을 구분하는 연구가 갖는 근본적 한계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등 보다 세분화된 지역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요망된다. 둘째,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지역에 따라 거주자의 특성이 다를 수 있어, 연구자가 발견한 지역의 차이가 지역의 특성 때문인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차이 때문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21].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통합문제를 검토하면서 개인적 특성은 물론, 가족적 특성, 사회적 특성을 포괄 하였으며, 아직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지역사회통합의 지역간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특성이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통합에 차별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 연구에 있어 지역특성 변수는 간과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통합 연구에 있어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심도 있는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1] 박범중, “다문화가족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동북아문화연구, 제51호, pp.285-307, 2017.
- [2] D. Gerard, *Community(2nd Ed)*, N.Y. :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10.
- [3] 노대명, “사회통합의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50권, pp.6-19, 2009.
- [4] 이익섭, 박수경, 광지영, “시각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실태와 관련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54권, pp.149-176, 2003.
- [5] S. P. Segal and U. Aviram, *The mentally ill in community-based sheltered care: A study of community care social integration*,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78.
- [6] 양점도, 김춘택, 김복현,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0집, 제1호, pp.101-126, 2014.
- [7] 김한성, 이유신,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 특성과 차별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7권, 제2호, pp.177-209, 2013.



[8] Michael McBride, "Relative-Income Effects on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ross-Sectio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Vol.45, No.3, pp.251-278, 2001.

[9] 권구영, 박근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남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제14권, pp.187-219, 2007.

[10] G. Becker, E. Landes, and R. Michael, "An economic analysis of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85, No.6, pp.1141-1187, 1977.

[11] 홍창희, "가정폭력과 여성의 건강," *여성연구*, 제8권, pp.107-133, 1997.

[12] 남기민, 하미용,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일 경험: 날고 싶은 거위의 꿈," *한국가족복지학*, 제37권, pp.41-75, 2012.

[13] J. C. Holahan and H. R. Moos, "Personal and contextual determinants of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2, pp.946-955, 1987.

[14] 김창기, 이진성,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2호, pp.297-306, 2013.

[15] 최현미, 윤명숙,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영향요인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3호, pp.119-142, 2013.

[16] 조현미, "고령군의 다문화가정 지원현황과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4권, 제4호, pp.347-366, 2011.

[17] A. Agresti, *An Introduction to Categorical Data Analysi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2001.

[18] <http://www.kostat.go.kr>

[19] 김계수, *New Amos 7.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한나래, 2007.

[20] Gary. Becker, *Human Capita I: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N.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75.

[21] R. J. Sampson, J. D. Morenoff, and T. Gannon-Rowley, "Assessing Neighborhood Effects: Social Process and New Directions in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28, pp.443-478, 2002.

### 저 자 소 개

김 경 범(Kyung-Bum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 2010년 2월 ~ 2016년 12월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 2017년 1월 ~ 현재 : 제주특별자치도

<관심분야> : 교통정책, 행정통계, 도시행정

박 철 민(Cheol-Min Park)

정회원



- 1992년 2월 :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 2002년 2월 :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 2007년 9월 ~ 현재 :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